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사도 요한 (Revelation 12:7-9)

사도 요한 (Revelation 12:7-9)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 천사들이 싸우되

안식일 오후, 3월 30일

기억 핵

"And there was war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the dragon fought and his angels, and prevailed not; neither was their place found any more in heaven." KJV — Revelation 12:7, 8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새 그 큰 용과 사탄이 다 쫓겨나니 이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칭하는 옛 뱀이 땅으로 쫓겨나매 그의 천사들도 쫓겨나니라" 개역 — 요한계시록 12:7, 8

"Christ does not drive but draw men unto him. The only compulsion which he employs is the compulsion of love. When the church begins to seek for the support of secular power, it is evident that she is devoid of the power of God and ready to persecute." Ellen G. White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몰아오지 않으시고 그분에게로 이끌고 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강제는 사랑의 강제이다. 교회가 세속 권력의 지원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박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엘렌 지 화이트

3월 30일 토요일

War in Heaven

하늘의 전쟁

Read Revelation 12:9. What does this passage reveal about the freedom existing in heaven and the origin of evil? Albert Carr related, "Satan's rebellion was not spontaneous.

요한계시록 12:9을 읽으라. 이 구절은 하늘에 존재하는 자유와 악의 기원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알버트 카(Albert Carr)는 이렇게 말했다. "사탄의 반역은 자발적이지 않았다.

"Revolution of every kind, against divine government, is the product of the incident of verse 9. The Lord cooly draws the dragon. The former took place in heaven, the latter on the earth, the latter after this resurrection. This is made manifest in the following paragr-aphs.

"모든 종류의 혁명은 신적 정부에 대항하여 9절의 사건의 산물이다. 주님께서는 용을 냉정하고 침착하게 끌어내셨다. 전자는 하늘에서 일어났고 후자는 땅에서 일어났으며 후자는 이 부활 이후에 일어났다. 이것은 다음 단락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In the days of Job Satan still had access to heaven, for we are told "...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came also among them.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Whence comest thou? Then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Doubtless, and in his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in it." Job 1:6, 7.

"Satan was the first to sin, and he was the first to tempt others to sin. Satan was the first to lie, and he was the first to deceive others. Satan was the first to murder, and he was the first to kill others. Satan was the first to rebel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and he was the first to tempt others to rebel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Satan was the first to lay his plots against the government of God, and he was the first to tempt others to lay their plots

"신실로 그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음이라.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에 자기 형제와 같이 되사 하나님에 관한 일에 자비롭고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그 자신이 시험을 받으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감화하실 수 있느니라"(히브리서 2:16-18). 1SM 261.2

"'For we have not an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Hebrews 4:15). 1SM 261.3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만지지 아니할 대제사장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4:15). 1SM 261.3

"Jesus came to bring moral power to combine with human effort, and in no case are His followers to allow themselves to lose sight of Christ, who is their example in all things. He sai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also might be sanctified through the truth' (John 17:19). Jesus presents the truth before His children that they may look upon it, and by beholding it, may become changed, being transformed by His grace from transgression to obedience, from impurity to purity, from sin to heart-holiness and righteousness of life." 1SM 262.1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과 결합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에서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함은 그들도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7: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은혜로 변화되어 범죄에서 순종으로, 불결에서 순결로, 죄에서 마음의 거룩함과 생명의 의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의 자녀들 앞에 진리를 제시하십니다." 1SM 262.1

Read John 17:24-26. What is Christ's longing desire in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good and evil?

요한복음 17:24~26을 읽어 보라.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간절 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The love of Christ is broad and deep and full, and should awaken in the heart a response that will overbalance every worldly consideration. The cross of Calvary is a convincing proof of his interest in humanity. His plea in their behalf, before he ascended to the Father, was,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which thou hast given me; for thou lovedst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 in them, and th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 an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thou hast sent me, and hast loved them, as thou hast loved me.'" RH October 13, 1896, par. 13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깊고 충만하며, 모든 세상적인 고려를 뛰어넘는 반응을 마음속에서 일깨워야 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관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신 것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는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셨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게 하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RH 10월 13일, 1896, par. 13

4월 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We are now living in the great day of atonement. In the typical service, while the high priest was making the atonement for Israel, all were required to afflict their souls by repentance of sin and humiliation before the Lord, lest they be cut off from among the people. In like manner, all who would have their names retained in the book of life should now, in the few remaining days of their probation, afflict their souls before God by sorrow for sin and true repentance. There must be deep, faithful searching of heart. The light, frivolous spirit indulged by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must be put away. There is earnest warfare before all who would subdue the evil tendencies that strive for the mastery. The work of preparation is an individual work. We are not saved in groups. The purity and devotion of one will not offset the want of these qualities in another. Though all nations are to pass in judgment before God, yet He will examine the case of each individual with as close and searching scrutiny as if there were not another being upon the earth. Everyone must be tested and found without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GC 489.3

"우리는 지금 위대한 속죄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배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굴욕을 당함으로써 영혼을 괴롭혀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모든 사람은 이제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죄에 대한 슬픔과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괴롭혀야 합니다. 깊고 신실한 마음 찾기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공언하는 가볍고 경박한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정복하려는 악한 경향을 정복하려는 모든 사람 앞에는 진지한 전쟁이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개별적인 작업입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함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이러한 자질의 결핍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것처럼 각 개인의 경우를 면밀하고 면밀히 조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흠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시험받고 발견되어야 합니다. GC 489.3

"Solemn are the scenes connected with the closing work of the atonement. Momentous are the interests involved therein. The judgment is now passing in the sanctuary above. For many years this work has been in progress. Soon—none know how soon—it will pass to the cases of the living. In the awful presence of God our lives are to come up in review. At this time above all others it behooves every soul to heed the Saviour's admonition: 'Watch and pray: for ye know not when the time is.' Mark 13:33. 'If therefore thou shalt not watch, I will come on thee as a thief, and thou shalt not know what hour I will come upon thee.'" Revelation 3:3. GC 490.1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